

Toray, 2차전지 분리막 구미공장 가동

6월10일 준공식 개최하고 본격 가동 ... 공압출 하이브리드 제조기술

도레이도넨기능막코리아(TTK)는 6월10일 구미국가산업단지에서 2차전지 분리막 공장 준공식을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TTK는 미국 ExxonMobil의 일본 자회사인 도넨기능막합동회사가 100% 출자해 설립했으나 2010년 2월 Toray가 회사 지분 50%를 매입하면서 회사명이 변경됐다.

전기자동차(EV) 등에 사용되는 2차전지의 핵심부품인 분리막을 생산하는 TTK는 일본에서 사용되는 단일 층 PE(Polyethylene) 분리막 제조기술에서 발전된 공압출 하이브리드 분리막 제조기술을 채용해 공장을 건설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억5000만달러를 들여 1단계 사업을 완공했으며 2015년까지 1억7500만달러를 추가 투자해 공장 건설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TTK는 공장 건설이 마무리돼 정상 가동되면 고용인원이 250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구미시 투자통상과 류시건 담당은 “세계적으로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제품 열풍이 불고 있어 2차전지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다.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구미공장 준공식에는 도레이도넨기능막합동회사 타케오 토가노 회장과 라인하트 파펜 사장, 김관용 경북지사, 남유진 구미시장, 김성조·김태환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6/10>